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그가 남긴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현직 국무총리와 전, 현직 대통령비서실장, 지방자치단체장, 친박 실제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가 하면 당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생전의 그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사의 비애를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쌍사나운 장면을 지켜보는 일반국민들의 심정은 그저 불편할 따름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말하는 '신뢰', '사랑', '의리', '배신' 등의 단어가 과연 적절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고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가 선택한 죽음은 그다지 멋진 일로 보이지 않는다. 백년 양보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건넨 금전적 호의를 순수한 인

'성완중 리스트' 사태, 탐욕이 빛은 참극

간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성격의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 간의 '신뢰'나 '의리'는 부정할 이익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안만 유효하다. 그런데 여기에 '배신'과 '의욕'이란 말이 동원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조합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성완중 회장의 초등학교 중퇴경력과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하여 자산수익이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수완은 젊은이들에게 닳고 싶은 성공모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은 평소 자기사람만 듣기에 열중했던 그의 사업방식과 정치행태를 색 바라진 것만 보지 않는 것 같다. 우려한 대로 그는 이른바 인맥쌓기의 후유증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불법대출과 각종 이권정착으로 연명하던 기업과 선거부정으로 얻은 국회의원의 급배지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업가이자 부도덕한 정치인일 뿐 사회정의의 부르짖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내던져도 좋은 투사나 의인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사회에서 말이 넓은 사람이란 평판은 곧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능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사람을 사귀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마치 인간관계의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여겨온 우리자신들의 천박함과 미성숙함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여기에는 혈연과 학연 및 지연이 총동원된다. 그럴 때마다 한 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윤리학에서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사람이 곧 훌륭한 사람이라는 '가치'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자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을 느낀다. 그와 같은 그릇된 인간관계의 이해와 적용이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공신화를 만들었고 또한 그를 죽인 원인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던 너무 비약하는 것일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이른바 '인맥'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어른 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개인의 불행한 죽음을 통해 한국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성찰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바람직한 일일 수는 없겠지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한 것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성완중 회장의 녹취록에서 들을 수 있었던 '신뢰', '사랑', '의리', '배신'이란 단어가 엉뚱한 의미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고유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한 사회가 머지않아 도래하기를 한마음으로 꿈꾸어 보자는 제안을 드린다. 부처님은 <심갈로와다 수따>에서 진정한 친구사이란 서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인간관계임을 강조하셨지만 경전의 어디에서도 옳지 않은 목적을 위해 친구를 함부로 들먹여도 좋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음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순진한 생각을 해보았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불교명상 저변 확대에 좋은 기회 되길

힐링 열풍이 불면서 명상 수행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명상을 하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어 스트레스를 훌훌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은 하고 싶는데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명상의 진정한 효과를 알리기 위한 관련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 발원이 이뤄졌다. 불교명상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한데 머리를 맞대고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발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장에는 행복마을이사장 용타 스님이 맡았다. 이외에도 오랫동안 참선명상을 연구한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금강선원 주지 해거 스님을 비롯해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장인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이 그들이다. 명상포교는 흔히 21세기 중요한 포교대안

이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은 직원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속속 도입한다. 우리나라에서도 SK나 삼성 등 유수 기업들도 명상을 직원연수 과정으로 편성중이다. 이제 명상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산업, 예술, 심리, 건강, 환경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오는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각 학교서 발달 수준에 따라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국)가 차원에서 전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준다면 명상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명상포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명상지도자 협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유능한 명상 지도자를 양성해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5월 관광주간, 불교문화 알리는 계기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광주간이 시작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관광주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전국 지자체, 3000여개 관광관련 업체가 참여한다. 주부 부처인 문체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광주간 동안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자율휴업 및 단기방학을 권장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상 학교 중 89%인 1만199개교가 자율휴업 및 단기방학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봄 관광주간에는 지자체 대상 공모에서 선정된 17개 대표 관광 프로그램이 실시한다. 그중 하나가 불교계의 템플스테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15 봄 관광주간을 맞아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행복만원(幸福滿願) 템플스테이'를 연다.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운영시설 77곳에서 아름다운 산사의 봄을 만끽해 볼 수 있다. 봄을 맞아 재정비된 각 사찰의 대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참선, 스님과의 차담, 108

배 등 지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수행 프로그램은 물론, 찻잎 따기, 선무도 수련, 역할극, 손수건 염색, 만다라 명상 등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심분 활용한 트레킹과 숲 명상은 꽃놀이가 그리운 이들에게 제격이다. 서울에서도 관광주간동안 지난해 가을 진행도 호평을 받았던 '템플스테이 워크'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제 템플스테이는 그 동안 단순한 체험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복 여행으로 진화해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국의 유려한 산사와 한국불교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장 포교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문화적으로 친숙해지는 것이 불교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다. 이번 봄 관광주간을 맞아 온 국민이 청정한 자연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발언대

장애인의 날에 부처



미영순 전국지식인연화회장

4월 20일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요란하게 보이도록 꾸며지는 행사가 매년 진행된다. 민관의 홍보용 일회성 잔치에 눈을 뜨게 뜨기는 어렵다. 불자 인지라 "불교계에서는 그나마라도?"라고 물을 때가 있다. "한국판 헬렌켈러"라고 주위에서 불러서 열렬하게 된 시각장애인 단체의 대표 역할이 16년째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장애인단체(?) 생각할 줄을 몰라 '무늬만 장애인'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불교계의 지극히 소극적인 장애인 포교에 대해서도 '그런가 보다' 여겨왔다. 불자 대부분도 '장애인'이란 단어를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지 못한다. 따지고 보면, 왜소증 환자인 사귀아를 보듯오신 예수보다 아나올의 웃을 께매 주신 부처님이 한참이나 선배이신데,

아나올 웃, 누가 께매 주나?

아나올의 실명이란 인과는 '잠을 자지 않은 무리'가 원인이었다. 전생의 몸술 때 때문이란 설명은 없다. 인과는 곧 업이라는 말에는 '전생'이라는 정서가 녹아 있는 듯하다. 2015년 현재 장애인에게 대놓고 '응보'라고 말한다. 상담 중에 이따금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불교를 권하기도 한다. 일부 장애인 개신교는 생리적으로 싫어서 사찰에 가지 않더라도 아오는 것은 전생의 죄를 많이 지은 딱한 존재라는 거부스러운 눈길이었다. 전통을 존중하기에 접근성 이동성의 제약은 감수하겠으나, 한 칸에서 끝낼 해를 찾는 할머니는 있어도 다가가 거들어 주는 이는 없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KBS 제3라디오에 흡수된 '사라의 소리 방송'이라는 장애인 라디오에서 '미영순 칼럼'을 6년 동안 진행했다. 우리 대부분도 '장애인'이란 단어를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지 못한다. 따지고 보면, 왜소증 환자인 사귀아를 보듯오신 예수보다 아나올의 웃을 께매 주신 부처님이 한참이나 선배이신데,

라는 게 늘 가지처럼 목에 걸려 있었다. 그 무렵은 소의계층의 중심이 소년 가장에서 장애인으로 옮겨지던 때, 방송마다 다쳐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BBS불교방송도 '빈자일등'을 한밤중에 방송했었다. 정책 중점이 또 노인 다문화가정으로 바뀐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폭 감축됐지만, 개신교계 방송에선 보다 더 맹렬해졌다. '장애인 포교 전법단' 결성 소식을 일찌감치 들었다.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을(손가락이 남지만) 떠올리며 기대와 응원을 보냈다. '장애인포교 전법단장 스님의 포부가 웅대했다. 반가웠다. 이제라도... 감사합니다.' 며칠 뒤 전법단에 전화로 물었다. 전법의 계획과 프로그램은. 전화 속 직원이 중핵 소임자는 아니겠지만 대답은, "아직"이었다. 실적으로는 2차례의 '종사자들 제주소 워크샵'을 들었다. 그러고 돌아온 대답은 "더 알고 싶거든 장애인 포교 거점사찰에다 문의"하란다. 그래서 몇 군데에다 물어 보았다. 거점사찰로 지정된 한 도심 사찰 중무소의

답은, "우리가 거점사찰이요? 잘 모르는데요"였다. 이 사실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 있어 거점으로 지정된 모양이다. 뇌병변 불자들이 저기 갔다 여기로 와서 월1회 법회를 열고 있지만 장소 제공일 뿐이다. 늦은대로 교계에서 수탁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경험 인력 부족에 마인드도 열정도 결핍이라 종교 중립일 수밖에 없다. 원장님만 스님일뿐이지 직원도, 이용자도 거의 기독인이란다. 진각종이 위탁 받은 시립노인요양원에선 목사나 교도들이 일요일마다 선불 신고 찾아와 예배를 본다. 유일하게 단주 끼신 할머니는 늘 왕따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 법회가, 장애인 포교에 열정 쏟는 분이 계시긴 하다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고 후원하는 불자도 적지 않다. 다만, 불교계 전반의 정서와 관심 지원 부족 속에 위축 소멸됨을 지켜보고 있다. '장애인 포교 활성화'는 난방이다. 현재 불교계는 아나올의 웃을 께매 주긴 커녕 찢어 주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 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서 손
*오심, 구역,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오주배개 등 자매품다양)